

1103(목) 요한복음 16-18장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

“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,
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
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”
(15:5, 이름⑧)

예수님은 참 포도나무, 참 이스라엘이십니다(사5:2).
욕망/야망/불필요한 것들을 깨끗이 가지치기하고(15:2)
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,
생명/기쁨/사랑/평안을 누리게 됩니다.
(10:30, 16:32, 17:21/15:8-9, 11, 16:33, 17:13).

우리를 <친구>라 부르신 예수님은(15:13, 15)
대신 죽으심으로 큰 사랑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.
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,
모든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(15:16, 16:23-24, 히4:16).
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
그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(17장).

새로운 일들에는 새로운 고난도 있습니다.
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산고의 고통입니다.
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,
위로하시고 변호하시며 중보하실 것입니다.
(14:16, 15:18-27, 16:6-11, 20-22)

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
예수님의 무죄와 정당성을 입증하실 것입니다.
어둠의 권세에 유죄가 선고될 것입니다(16:8, 16).

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?

- 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/기쁨/사랑/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까?
- ②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친밀함을 누릅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요한복음 16-18장